류현진, 강팀 워싱턴 잡고 3연승 | 최강 우완 스트라스버그를 이긴 4가지 비결

‘환상적인 포피치’로 워싱턴 강타선 무장해제

1 속구·체인지업에 커터·커브도 예리
2 변화무쌍한 볼배합으로 타자들 현혹
3 삼진·땅볼로 16개 아웃 안정감도 굿
4 과감한 몸쪽 공략…커맨드도 향상

과거의 류현진(31·LA 다저스)은 시속 150km를 웃도는 강속구와 체인지업, 두 가지 구종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타자를 압도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빠른 공의 구위와 체인지업의 무브먼트가 뛰어난데다 완급조절 능력도 탁월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투구수 100개를 넘긴 이후에도 공에 힘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2015시즌 중반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에는 투구 패턴이 달라졌다. 이는 구속저하와 궤를 같이한다. 여전히 시속 140km대 후반의 위력적인 공을 던지지만, 최고구속이 150km대 중반에 이르던 과거와는 차이가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한 구종을 골고루 섞어 던지는 것이다. 기존의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위력을 유지하되 컷패스트볼(커터), 커브, 슬라이더, 투심패스트볼(투심) 등의 비중을 늘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커터와 커브의 완성도는 다른 구종 못지않다. 이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22일(한국시간) 워싱턴과 홈경기에선 류현진이 가장 잘 던지는 4가지 구종의 볼배합이 완벽에 가까웠다. 슬라이더 1구를 제외한 패스트볼(25개), 커터(26개), 체인지업(21개), 커브(16개)의 황금분할이 바로 그것이다. 패스트볼 28.1%, 커터 29.2%, 체인지업 23.6%, 커브 17.9%의 비율이다. 이는 상대 타자의 노림수를 뺏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7이닝 2안타 3볼넷 8삼진 무실점의 시즌 최고투로 3승째를 따낸 비결이다. 아웃카운트 21개 가운데 16개(76.2%)를 삼진과 땅볼로 만들어낸 점은 류현진의 안정감을 보여준 한 단면이다. 또 패스트볼, 커터, 체인지업, 커브의 4개 구종으로 각각 2개씩 삼진을 솎아내며 결정구도 다양화했다.

이날의 백미는 유일한 위기였던 3회 2사 만루 위기에서 커터로 상대 우타자 모이세즈 시에라의 몸쪽을 공략해 땅볼로 이닝을 마감한 장면이다. 자신있게 우타자의 몸쪽을 공략해 위기를 벗어난 모습이 돋보였는데, 다양한 구종을 활용해 코스를 공략하는 커맨드의 향상을 증명하는 대목이라 의미가 컸다. MBC스포츠+ 정민철 해설위원은 “(류현진이) 늘 잘해왔던 것을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호평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류현진 22일(한국시간) 워싱턴전 투구분석

구종	투구수
패스트볼	25
컷패스트볼(커터)	26
체인지업	21
커브	16
슬라이더	1
합계	89

※ 7이닝 2안타 3볼넷 8삼진 무실점

LA 다저스 류현진(오른쪽)이 22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전에서 7이닝 8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3승에 입맞춤했다. 포피치의 황금분할이 돋보였다. 6회 투구 도중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류현진. LA | AP뉴시스

내가 왜 떴게?

뒤통수 폭행?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아이유 뒤통수** :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아이유. 최근 방영된 회차에서 이지안은 박동훈(이선균 분)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내 뒤통수 좀 때려달라”고 요구한다. 박동훈은 실제로 뒤통수를 때리고, 이지안은 도로 위에 쓰러진다.

이 장면을 두고 또 시끄러워졌다. 이 드라마는 1회를 시작하자마자 폭행장면이 문제가 됐었다. 사채업자가 이지안을 2분여 동안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영돼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평론가들의 시선도 엇갈리는 모양이다. 약자에 대한 폭력 장면이 불편하다고 보는 시선과 드라마를 좀 더 균형있게 봐야한다는 시선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누리꾼들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 안 불편해”라는 것이다.

미니미, 안녕… 그대는 1m의 거인

●**베른 트로이어** : 영화 ‘오스틴 파워’ 시리즈에서 미니미 역으로 등장해 영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배우 베른 트로이어(49)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베른 트로이어는 연골 무형성 왜소증을 갖고 태어나 키가 1m도 되지 않은 배우였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레전드’ 등의 영화에도 출연했다. 최근 수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려 왔으며 사인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그는 악당이지만 결코 밉지 않았던 악당이었다. 미니미 안녕. 그대는 1m의 거인이었다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캐디 알바하던 골프장서 KPGA 첫 승…23세 전가람 ‘행복한 축배’

프로미 오픈 15언더파 273타 정상

3년전 이 대회서 캐디 보며 새 각오
“이곳에서 꼭 한번 우승하고 싶었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3년차 신예 전가람(23)에게는 각별한 애정이 담긴 골프장이 있다. 바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대유몽베르 컨트리클럽이다.

전가람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이곳에서 5개월간 캐디로 일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몸담은 골프에 흥미를 잃어가던 찰나, 지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 받고 캐디백을 짊어졌다. 프로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새 삶을 찾아 나서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당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줄은 본인조차 알지 못했다. 전가람은 그해 4월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을 캐디 신분으로 지켜보면서 다시 골퍼로서의 꿈을 되찾았다.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다. 선배들의 플레이에 감탄하던 약관의 캐디는 23살 프로골퍼가 돼 아르바이트를 했던 바로 그 골프장, 그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전가람은 22일 대유몽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최종라운드에서 샷이글을 포함해 버디 5개를 몰아치는 화끈한 플레이를 앞세워 15언더파 273타로 정상에 올랐다. 투어 데뷔 3년만의 감격적인 첫 우승. 전가람은 대회 개막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막판에는 홀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3라운드와 4라운드 나란히 6타씩을 줄여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직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전가람은 한동안 자신의 성적이 담긴 라이브스코어 보드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흐뭇한 미소도 입가를 떠나지 않았다. 당차게 인사를 마친 전가람은 “내가 꼭 우승을 하고 싶던 대회에서 목표를 이루게 돼 기쁘다. 대유몽베르 컨트리클럽은 나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여기서 꼭 한 번 우승을 차지하고 싶었다”며 활짝 웃었다.

전가람은 “3년 전 골프에 흥미를 잃었는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 출전한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나도 다시 해봐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그래서 그해 8월 캐디 일을 관두고 연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통과해 이 자리에 섰다”고 회상했다.

전가람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이색적인 기록도 남겼다. 2년 전 고향 의정부를 떠나 아버지의 사업장이 위치한 포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전가람은 “우승 직후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 그리고 대회장 인근의 연천군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오셔서 큰 힘이 됐다”며 웃었다.

포천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전가람이 22일 경기도 포천 대유몽베르CC에서 열린 KPGA 투어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전가람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가진 대유몽베르CC에서 KPGA 데뷔 3년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거뒀다. 사진제공 | KPGA

신장암 전태관 돕기, 가수들이 나섰다

〈봄여름가을겨울〉

오랜 투병에 최근 아내도 암으로 잃어
김종진 등 동료들, 매달 일정액 후원

▶전태관

2인조 밴드 봄여름가을겨울 멤버 전태관을 돕기 위해 동료가수들이 한 마음으로 나선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신장암 투병 중인 전태관이 최근 부인까지 암으로 잃고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동료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전태관이 2012년 신장암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어깨, 뇌, 머리피부, 척추 등으로 암이 전이됐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뿐더러 오랜 투병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그의 고통을 분담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이런 의견은 최근 아내 김모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아졌고, 봄여름가을겨울의 또 다른 멤버 김종진을 주축으로 실천에 옮기게 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22일 “문상 온 동료 가수들이 전태관 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다”면서 “일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태관의 최소 치료비와 생활비, 딸의 교육비 등을 감안해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지속적인 후원 및 후원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상한액을 제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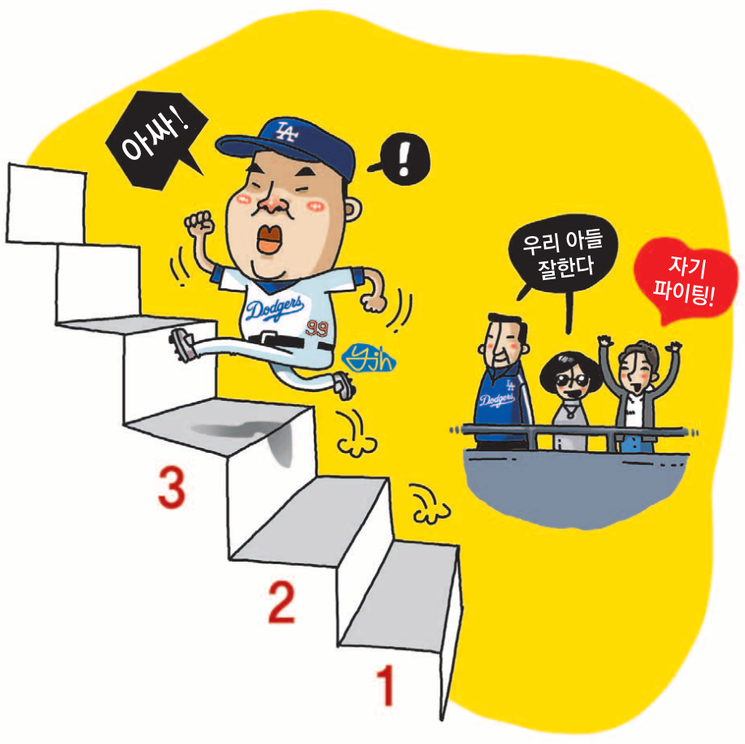
이외에도 동료 가수들은 봄여름가을겨울 헌정 앨범 등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기로 했고, 발생하는 수익 역시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태관이 자신의 아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 힘들 때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그런 성격을 더 잘 알기에 동료가수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여보, 올 가을엔 대박날거야”